

##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한 현 희  
(경희대)

### 1. 서론

통번역 교육 연구는 최근 10여 년 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Pym 2009)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통번역 교육이 기존의 전문 통번역 교육 기관을 벗어나 학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이와 같은 현상은 통번역 교육 연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김정우(2005: 45)는 번역학 자체가 실제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번역가를 양성하는 교육 연구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연스러운 증가 현상을 뛰어넘는다. 원종화(2015)는 교육 패러다임이 국내 통역 연구 초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향(2011) 또한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있어 통번역 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

\* 본 연구는 2016년 10월 한국외대통번역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한다. 통역학을 중심으로 해외와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한 한현희(2016)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경우 통역 교육 연구가 전체 연구의 약 30%나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2% 수준에 그치는 해외 통역학 연구 동향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통역 교육 분야가 전체 통역학 연구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통번역 교육 연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가 부재하다<sup>1)</sup>. 신지선(2013)이 번역 교육으로 한정하여 연구 동향 및 과제를 고찰한 바 있으나, 이는 해외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개괄·설명하는 문헌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번역 교육 연구 성과를 메타분석 기법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메타분석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되어진 수많은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객관적, 계량적으로 해당 연구 주제들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을 종합하여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이러한 양적 접근의 종합적 분석 연구를 통해 문헌 연구가 갖는 제한적인 한계를 넘어 개별 연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종합·비교함으로써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ibid). 어느 학문 분야든 다양한 업적이 축적되면 그간의 학문적 성과와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정용복, 최낙진 2014: 170).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고찰하려는 노력은 학문의 발전에 있어 활발한 연구 활동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한홍진 2007: 52). 특정 학문 영역 내에 존재하는 세계관 및 방법론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학문의 경계 확정 및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Faust & Meehl 2002; 정용복, 최낙진 2014: 170 재인용). 그러므로 그간 축적된 통번역 교육 연구를 메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본 논문은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KCI에 등재된 국내 대표적

1) 교육 분야만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통번역학이라는 큰 틀 내에서 교육 연구 현황이 다뤄진 바는 있다(김정우 2005; 최희섭 2007; 이향 2011; 김혜림 2013; 정호정 2013; 원종화 2015; 한현희 2016).

인 통번역 전문 학술지 3종 (『번역학연구』(한국번역학회), 『통번역학연구』(한국외대통번역연구소), 『통역과 번역』(한국통역번역학회))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230편을 코퍼스로 삼아 분석한다<sup>2)</sup>. 분석 대상 기간은 각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본 연구의 진행 시점인 2016년 상반기까지로 한다. 메타분석을 위한 분류 틀은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 연구의 분류 틀(Yan et al. 2015)을 수정·적용하며, 분류 작업은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기초하여 진행하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류 프로세스를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 2. 통번역 교육 연구의 분류 틀 및 분류 작업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도를 파악할 분류 틀 마련 작업이 불가피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별 분류의 경우 번역학의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Holmes 1972/2000; William & Chesterman 2002; Ladmiral 2003; Pöchhacker 2004; 許鈞 외 2009). 그러나 교육 주제는 교육 관련 모든 연구를 아우르는 하나의 카테고리 통합되어 있거나 심지어 평가와 교육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여 있는 경우도 있어(Holmes 1972/2000; 정호정 2013: 34) 세부적인 연구 영역의 구분 짓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홈즈(Holmes 1972/2000)의 번역학 도해에서 응용 분야의 하위 영역으로 번역 교육이 교수법, 시험 기법, 교과과정 설계로 구분, 윌리엄과 체스터만(William & Chesterman 2006: 1-30; 이향 2011: 351-2 재인용)에서도 교과과정 설계, 특정 교과목의 내용, 교수법 및 평가 방법, 번역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에 관한 연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적 측면의 교육 연구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협소한 틀만으로는 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 주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 신지선(2013)은 우르타도(Hurtado 2007)

2) 통번역 교육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통번역교육연구』(한국통역번역교육학회)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 학술지의 경우 현재 등재지가 아닌 등재후보지 상태이며(2017년 2월 기준), 연간 3회 발행하는 규정과 달리 2016년 1호 발간 이후 학술지 발간 활동이 중단된 점, 또한 온라인상으로 2007년 이전의 논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가 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꼽은 세 가지 영역, 즉 교육 내용, 수업 방법, 번역 평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 바 있으며, 장 들릴(Jean Delisle 2002) 또한 번역 교육 분야를 교육 동기, 교육 내용, 교수법, 평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대주제적인 성격에 그쳐 하위 주제 분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주제 또한 교수자 입장에서만 구분된 까닭에 학습자 관련 연구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한현희(2016)는 홈즈의 도해를 근간으로 하되 기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통역 교육 영역을 교육 방법론/교수법, 교육 일반 연구, 교육과정 연구, 교육 심리 연구, 교육 평가 연구, 통역 정책 등의 세분화된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바 있으며, 방데피트(Vandepitte 2008: 585; Yan et al. 2015: 266 재인용)는 번역 교육, 번역 교수법, 언어 교수법 연구, 커리큘럼 디자인, 커리큘럼 수행, 번역 평가, 번역사 교육 기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세부적인 분야를 나열하는 방식이라 앞서 지적한 문제와 상반되게 대주제 분류, 즉 교육 연구의 큰 골격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안 외(Yan et al. 2015)는 통번역 교육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주제 및 연구 방법 분류 체계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통번역 교육 연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일 뿐만 아니라 본고의 연구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고, 실제 분류 적용에 있어 이미 결과로서 증명된 바 있는 안 외의 분류 기준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분류 및 정의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2.1 통번역 교육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 틀

안 외(2015)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적용하는 분류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통번역 교육 연구 분류 틀 (Yan et al. 2015 참조)

구분	세부 내용	
독립 변수	교육 대상	학부, 대학원, 학부 및 대학원, 기타
	교육 분야	번역, 통역, 통번역, 언어
	교육 언어	노어, 독어, 불어, 서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전체
주제 범주	교수	1)교수 철학                      ①이론적 틀

			②학제적 유형학
			③교육 구성 요소
		2) 교수법 및 모델	①제도적 훈련 모델
			②교실 훈련 접근법
		3) 능력 개발	①통/번역사 능력
			②통/번역 능력
		4) 수요 분석	
		5) 기술&훈련	
		6) 연구 능력 훈련	
		7) 번역&언어	
	학습	1) 학습자 퍼포먼스	①특징
			②오류/난제
			③전문지식 개발
			④능력
		2) 학습자 요소	①일반/멀티적 요소
			②개인성
			③불안&스트레스
			④학습 스타일
			⑤전략
		평가	교실 평가
②모델&방법			
전문적 승인&인증	①이론적 틀		
	②모델&방법		
연구 방법론	경험 연구	1) 관찰 연구	①사례 연구
			②코퍼스 연구
			③조사 연구
			④상관 연구
			⑤실행 연구
			⑥비교 연구
	2) 실험 연구		
	비경험 연구	1) 기술 연구	
		2) 이론 연구	

우선 안 외(2015)의 분류 틀에는 제시되지 않은 독립 변수로 통번역 교육 대상과 분야, 언어를 구분한다. 통번역 교육 대상은 학부, 대학원, 학부 및 대학원, 기타로 구분, 교육 분야는 번역, 통역, 통번역, 언어로 구분, 교육 언어는 노어, 독어, 불어, 서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전체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핀다.

다음으로 주제 범주에서는 교수, 학습, 평가로 분류한다.

교수(Teaching)는 1) 'what to teach'의 교수 철학, 2) 'how to teach'의 교수법 및 모델, 3) 능력 개발, 4) 수요 분석, 5) 기술 및 훈련, 6) 연구 능력 훈련, 7) 번역 및 언어 교수의 세부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1) 교수 철학은 ① 이론적 틀을 이용한 교육이나 통번역 교육 일반 이론 혹은 특정 이론에 대한 토론을 다루는 이론적 틀 영역, ② 커뮤니티 통역, 기계 번역, 법률 번역과 같은 하위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학제적 유형학 영역<sup>3)</sup>, ③ 무엇이 통번역 교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교육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영역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커리큘럼, 강의계획서 제안 및 구성 비판, 평가 연구가 포함된다. 2) 교수법 및 모델은 ① 국내의 특정 통번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도적 훈련 모델 영역과 ② 교실 훈련 접근법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activity, task, project-based approaches(Gonzalez 2004)의 연구들이 해당된다. 3) 능력 개발 영역은 ① 시장의 전문가로서 기능에 부합되는 기술을 커버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 영역과 ② 통번역 자체 능력 개발과 관련, 즉 통번역 활동의 핵심에 접근하는 특정 능력을 탐구하는 연구 영역으로 나뉜다. 4) 수요 분석은 시장의 니즈 파악, 학습자 및 강의자 요구 니즈 조사·파악하는 연구 영역을 일컬으며 5) 기술 및 훈련은 e-learning technology, use of online resources, computer-aided tools와 관련된 연구 영역, 마지막으로 번역 및 언어 교수는 문자 그대로 번역과 언어 교육을 연관하여 다루는 연구 영역이다.

학습(Learning)은 1) 학습자 퍼포먼스와 2) 학습자 요소로 크게 구분된다. 1) 학습자 퍼포먼스는 ① 학습자 퍼포먼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루는 연구, ② 학습자의 오류 및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 ③ 학습자의 스킬 개발

3) 안 외(2015)에서는 통번역 교육 장르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필자는 장르 역시 교수, 학습, 평가의 주제로 구분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본고에서는 특정 장르 교육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로만 한정하기로 한다.

및 지식 축적을 다루는 전문지식(기술) 개발(과정) 연구, ④ 학습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연구로 나뉜다. 2) 학습자 요소는 ① 학습자의 직업/윤리 인식이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의 일반/멀티적 요소 ②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과 같은 개인성, ③ 학습자의 심리,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④ 학습 스타일을 다루는 연구, ⑤ TAP/Translog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전략을 파악하는 과정 연구로서의 학습 전략 연구 영역으로 구분된다.

평가(Assessment)는 크게 1) 교실 평가와 2) 전문적 승인&인증 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분야는 각각 ① rating scales, scoring rubrics 등을 다루는 이론적 틀과 ②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로 나뉘며, 전문적 승인&인증 분야는 교실 평가와 달리 시장 수요에 관한 연구 영역이 추가된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의 경우 안 외(2015)는 번역학자들의 선행 연구(Gile 2000; William & Chesterman 2002; M.Liu 2011; H.Liu & Mu 2013; Saldanha & O'Brien 2013)를 종합하여 경험 연구와 비경험 연구로 구분한다. 실증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 경험(empirical) 연구 방법론은 크게 1) 관찰(observational)과 2) 실험(experimental) 연구로 나뉘며, 전자의 경우 ① 사례(case) 연구, ② 코퍼스(corpus) 연구, ③ 조사(survey) 연구, ④ 상관(correlational) 연구, ⑤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⑥ 비교(comparative) 연구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경험 연구는 그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연구 대상 및 현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거나,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이다(정연일 2005: 99).

한편 비경험(non-empirical) 연구는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① 기술(descriptive) 연구와 ② 특정 개념을 정의/명료화하거나 특정 관념을 해석/재해석,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개념이나 메타포를 소개/도입하는 이론(theoretical) 연구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경험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선행 연구를 정리, 지식 기반의 차이를 규명, 문헌의 재해석, 이론적 또는 개념적 모형(틀) 구성에 그 목적이 있다(한홍진 2007: 54).

## 2.2 분류 작업

본고의 분석 대상 학술지는 『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이며, 분석 대상 논문은 창간호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게재된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 총 230편이다. 우선적으로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서 소개한 분류 틀에 의거하여 교육 대상, 분야, 언어, 주제, 연구 방법론 범주별로 분류하였고, 분류 시 논문 내용을 필히 참조하였다. 여러 분야에 중복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논문의 중심 논조에 근거하였으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분류 프로세스를 총 3회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제 분류만으로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를 좁히고자 AntConc 3.2.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문 제목과 초록, 키워드의 어휘 빈도를 추출하였다<sup>4)</sup>.

### 3. 분석 결과

이상의 분류 작업에 기반 하여 도출한 분석 결과를 독립 변수와 관련된 통번역 교육 일반, 주제별, 연구 방법론 통계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 통번역 교육 연구 일반 통계

가. 연도별 논문 수

학술지 별 통번역 교육 연구 관련 일반 통계를 집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술지별 논문 게재수

학술지명	기간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수	총 논문 수
번역학연구	2000~2016. 06	74편	555편
통번역학연구	1997~2016. 05	85편	440편
통역과 번역	1998~2016. 04	71편	349편
합계		230편	1340편

통번역 관련 저널이 최초로 발행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세 개

4) 단, 학술지마다 발행 초창기에는 영문 초록 및 키워드를 의무화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논문의 경우 어휘 빈도 분석의 해당 집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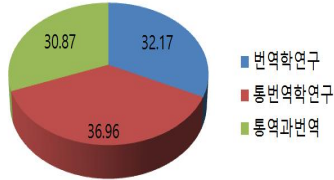
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수는 1340편이다. 이 가운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은 230편으로 전체 논문의 17.11%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역학에서 교육 연구가 30%가량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번역학 내 교육 연구가 통역학에 비해 저조해 전체 교육 연구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번역의 경우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만큼 교실 밖의 다양한 번역 행위 및 현상에 관심이 분산될 수 있지만, 통역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통역사의 통역 자료 확보가 어려운 까닭에 교육 연구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학술지별 교육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번역학연구』는 통번역 관련 총 555편의 논문을 실었고, 이 가운데 74편이 교육 관련 연구로 전체 논문의 13.33%를 차지하여 평균에 못 미쳤다. 『통번역학연구』는 총 440편의 논문을 게재, 이 가운데 교육 관련 논문이 85편으로 19.32%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한 연구 성과를 나타내었다. 『통역과 번역』은 총 349편의 논문을 발행하여 다른 학술지에 비해 게재 논문 수는 낮지만 교육 관련 논문은 71편으로 20.34%를 차지하며 세 저널 가운데 가장 높은 교육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sup>5)</sup>. 이와 같은 결과는 학술지 발행 기관의 창립 배경이나 연구진의 내부 구성비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학연구』를 발행하는 한국외대통번역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세부 사업과 연구 활동을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 BK21 사업단과 같이 운영하면서(한국외대통번역연구소 홈페이지) 주요 연구진이 통번역대학원 교강사 및 통번역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통역과 번역』을 발행하는 한국통역번역학회 또한 출범 당시 학회명이 국제회의통역학회였던 만큼 핵심 멤버가 통역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김혜림 2013: 108) 자연스럽게 통번역 교육 연구의 비중이 큰 것이다. 반면 『번역학연구』를 발행하는 한국번역학회는 창립 당시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장하였기에 어문학

5)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창간호부터 2013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혜림(2013)의 연구에서 『번역학연구』의 교육 연구 비중은 10.63%, 『통역과 번역』은 19.29%로 나타났으며,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향(2011)의 연구에서 『통번역학연구』의 교육 연구 비중이 20%로 나타난 바, 교육 연구 측면에서는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번역학연구』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열 연구진이 주축을 이루고 통번역대학원 출신은 소수만이 참여하여(최희섭 2014: 367; 김혜림 2013: 108-9) 학술지 성격 또한 다른 학술지와 차이를 보인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번역 교육 연구에 대한 학술지별 기여 비중을 살펴 보면 뜻밖의 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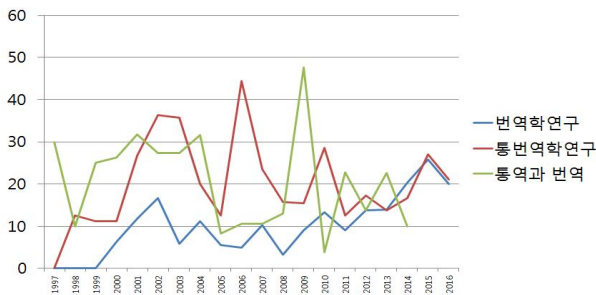
그림 1 학술지별 통번역 교육 연구 논문 수 비중(%)



앞서 『통역과 번역』이 학술지 자체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 연구 비중을, 『번역학연구』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전체 교육 연구 구도에서는 『통번역학연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하지만 기타 2종의 학술지 모두 30%를 웃돌아 세 학술지가 균형적으로 해당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기에 따른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추이를 학술지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도별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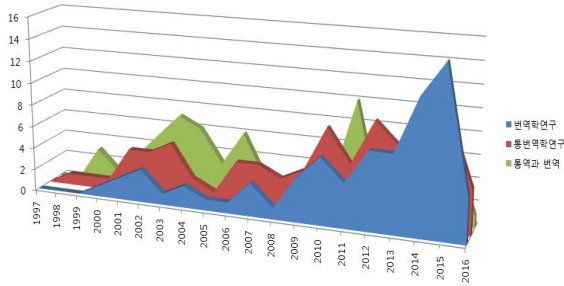


교육 관련 비중이 전체 논문의 1/5에 육박하는 『통번역학연구』와 『통역과 번역』의 경우 시기별 등락의 폭이 매우 큰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연구의 비중

이 낮은 『번역학연구』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역과 번역』은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14년 이후에는 성과가 거의 없는 반면 『통번역학연구』와 『번역학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통번역 교육 연구의 학술지별 비중 추이를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연도에 따른 통번역 교육 연구의 학술지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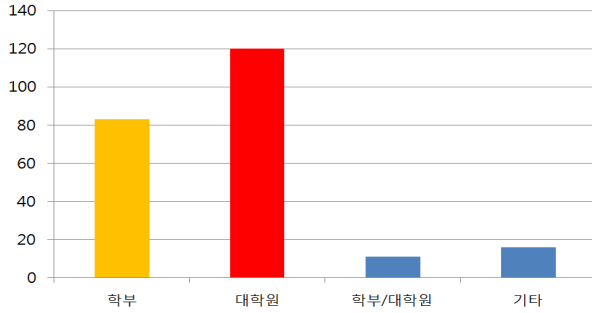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통역과 번역』이 통번역 교육 연구를 이끌어오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주춤,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번역학연구』 또한 『통역과 번역』과 더불어 꾸준히 교육 연구에 기여, 2000년대 후반에는 주도하기까지 했으나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한 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번역학연구』는 통번역 관련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줄곧 가장 미미한 교육 연구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기 시작, 2013년을 기점으로 두 학술지를 따돌리고 압도적으로 교육 연구를 이끌어 나갈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나. 교육 대상, 분야 및 언어

다음으로 통번역 교육 대상, 분야, 언어별 통계를 살펴보자.

우선 전체 통번역 교육 연구의 대상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통번역 교육 연구의 대상별 비중(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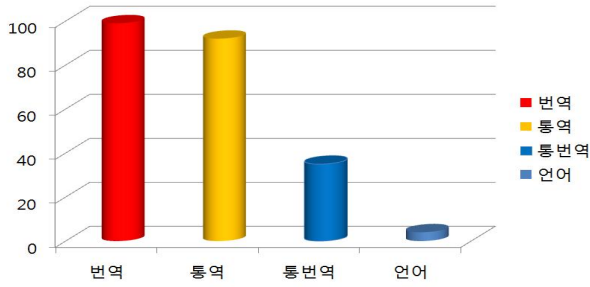


대학원 과정의 교육 연구가 120편으로 전체 연구의 5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내 연구의 초점이 통번역 전문가 양성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83편(36.08%) 논문의 학부 교육이 뒤를 따르는데, 학부에서의 통번역 교육 과정이 활발히 개설되면서 학부 교육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이에 대한 구분 없이 교육 기관이라는 제도권 내에서의 통번역 교육을 다룬 연구가 총 214편으로 전체 연구의 93.04%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제도권 밖의 교육 연구는 16편(6.96%)에 그쳐 연구 대상의 쓸림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진의 내부 구성, 즉 통번역 교육 연구자의 대부분이 통번역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 교강사진<sup>6)</sup>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 교육 연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5편 이상 교육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6명(김한식, 남원준, 신지선, 이상빈, 임향옥, 최문선), 3편 이상의 논문 게재자는 18명(곽중철, 김대영, 김련희, 김혜영, 마승혜, 박혜경, 엄행일, 원종화, 이미경, 이상원, 이창수, 정연일, 정철자, 정혜연, 조상은, 최정연, 최정화, 허지운, 홍설영), 2편의 논문 게재자는 13명(강경이, 김대진, 김정우, 김훈밀, 박소영, 오미형, 이계연, 이주리에, 이지은, 이해승, 한원덕, 한현희, 황지연)이며, 이들의 논문 편수는 128개로 전체 논문의 55.65%를 차지한다. 그러나 1편을 게재한 연구자 리스트 또한 대거 통번역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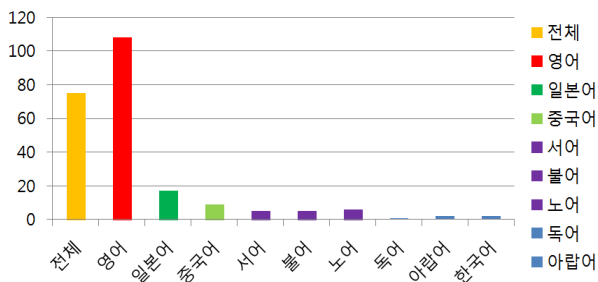
그림 5 통번역 교육 연구의 분야별 비중(편수)



위와 같이 번역 교육이 99편, 통역 교육 연구가 92편으로 각각 43.04%, 40%를 차지하며 통역과 번역의 교육 연구가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김혜립(2013)이 국내 통번역학에서 통역 연구가 번역 연구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대등한 연구 성과는 학생들의 통역 관련 자료나 실험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만큼 교육 연구에 있어서는 번역과 통역의 데이터 취득 조건이 동일한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 교육 연구는 고작 4편으로 3개 학술지 모두 언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통번역 연구라는 학술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통번역 교육 연구의 언어별 비중(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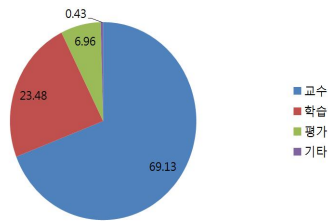


예상 가능한 대로 영어 관련 교육 논문이 108편(46.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언어의 경우 일본어 17편(7.39%), 중국어 9편(3.9%), 노어 6편(2.61%), 서어와 불어 5편(2.17%), 한국어 2편(0.87%)으로 점유율이 매우 미미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나치게 특정 언어 중심의 통번역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는 전체 통번역학 연구에서의 언어 편중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sup>7)</sup>.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별 연구자의 분포, 즉 영어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sup>8)</sup>.

### 3.2. 주제별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

다음으로 교수, 학습, 평가라는 대주제에 따른 국내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자. 각각의 주제 별 논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통번역 교육 연구의 주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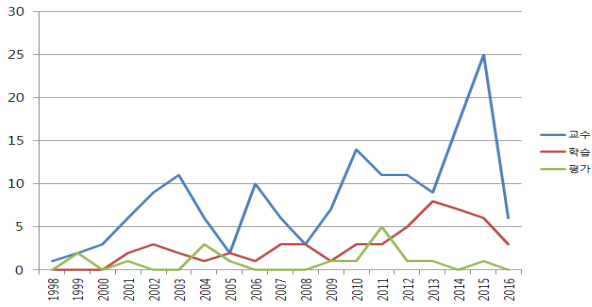
전체 통번역 교육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수이다. 교수 영역의 논문은 159편으로 무려 69.13%를 점유한다. 다음으로 학습 영역의 논문이 54편으로 23.48%를 차지, 평가 영역의 논문은 16편으로 6.96% 점유율에 그친다<sup>9)</sup>.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해외의 연구 동향과도 매우 유사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에 실린 교육 관련 논

- 7) 김혜림(2013)의 연구에서도 영어 관련 논문이 전체 통번역 연구의 절반을 차지, 기타 중국어, 일본어, 불어의 연구가 3~4%에 그치는 등 언어 쏠림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 8) 가령 번역학회 창립 당시의 회원 구성만 보더라도 영어 전공자가 전체 회원의 67.1%에 달한다(최희섭 2014: 372).
- 9)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은 교수, 학습, 평가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논문이며, 분석 대상에서 1편(신지선 2013)의 연구가 유일하게 해당된다.

문의 주제별 비중 또한 교수 영역이 7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학습이 18%, 평가가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Yan et al. 2015: 269).

시기에 따른 주제별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시기에 따른 주제별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교수 영역은 비록 큰 굴곡은 있을지라도 다른 주제 영역에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만큼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왔다. 학습 영역은 최근 5년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통번역 교육 연구 기간 이래 교수 영역과 가장 근소한 차이까지 좁혀가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통번역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어 교육 철학 자체가 상부 하달식 지식 전수 목표의 교수자 중심 관점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자 관점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Richards 2011; 정철자 2013: 158-9 재인용). 한편 평가 영역은 초기에 교수 영역과 대등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연구 주제로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함은 물론 최근에는 그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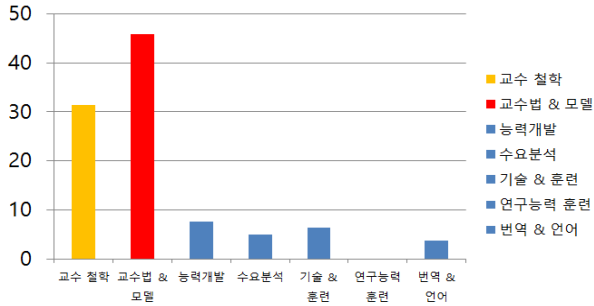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주제 영역별 하위 주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 교육 분야 연구 하위 주제 비중

교수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연구 비중을 차지하는 하위 주제는 그림 9에서 나타나듯 ‘how to teach’, 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수법 및 모델(총

73편, 45.91%)이다. 다음으로 ‘what to teach’, 즉 교수 철학 영역이 2위(50편, 31.45%)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외 하위 주제인 능력 개발(12편, 7.55%), 수요 분석(8편, 5.03%), 기술 및 훈련(10편, 6.29%), 번역 및 언어 교수(6편, 3.77%)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 능력 훈련 분야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림 9 교수 영역 하위 주제별 비중(%)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법 및 모델에 있어서도 그림 10과 같이 교실 훈련 접근법(47편, 64.38%)이 제도적 훈련 접근법(26편, 35.62%) 보다 큰 폭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 철학 영역 역시 그림 11과 같이 교육 구성 요소(36편, 72%)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론적 틀(12편, 24%)과 학제적 유형학(2편, 4%)은 둘이 합쳐 30%를 상회하지 못한다.

그림 10 교수법&모델 하위 주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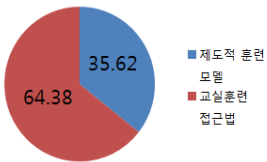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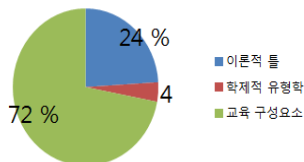


그림 11 교수 철학 하위 주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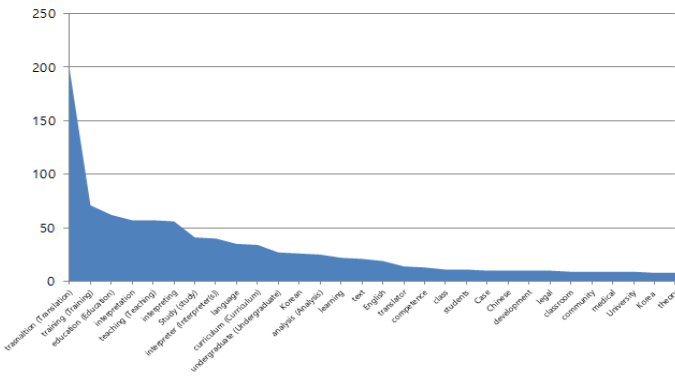
이처럼 교수 영역은 전체 교육 연구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과 동



시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위 주제 영역별 쏠림 및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교수 분야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해보기 위해 영문 제목 및 초록,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휘 빈도수를 확인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translation(198)이 가장 많이 출현, 뒤이어 training(71), education(62), interpretation(57), teaching(57), interpreting(56), study(41), interpreter(40), language(35), curriculum(34), undergraduate(27), korean(26), english(19)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번역 교육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통역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학부 연구 및 한영 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ranslator, competence, needs 등과 같은 어휘가 눈에 띄지 않는데, 이는 연구 주제별 불균형과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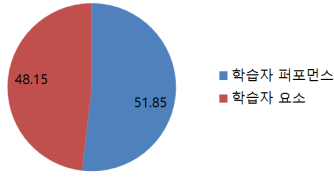
그림 12 교수 주제 통번역 교육 연구의 어휘 빈도



#### 나. 학습 분야 연구 하위 주제 비중

학습 관련 연구의 하위 주제를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이 학습자 퍼포먼스 연구(28편, 51.85%)와 학습자 요소(26편, 48.15%)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학습 영역 하위 주제별 비중(%)



그러나 학습자 퍼포먼스 관련 연구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14와 같이 오류 및 난제에 관한 연구(17편, 60.71%)가 과반 이상을 차지, 뒤이어 학습자 특징 연구(9편, 32.14%)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전문지식 개발과 능력 관련 연구 비중(각각 1편씩, 3.57%)이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연구 주제 불균형이 심각하다. 한편 학습자 요소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이 학습자 퍼포먼스에 비해 보다 균형감을 이루며 학습자 전략(7편, 26.92%), 일반/멀티적 요소와 학습 스타일(각각 6편, 23.08%), 불안&스트레스&심리(4편, 15.38%), 개인성(3편, 11.54%)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4 학습자 퍼포먼스 하위주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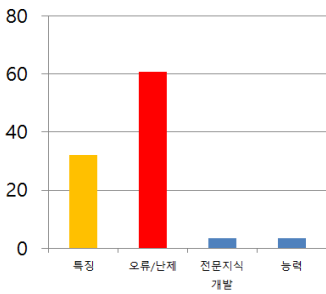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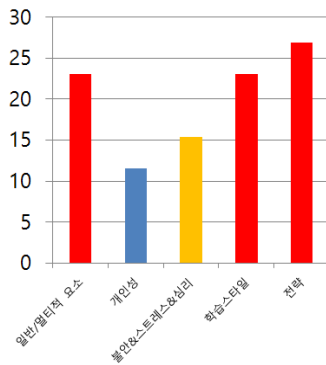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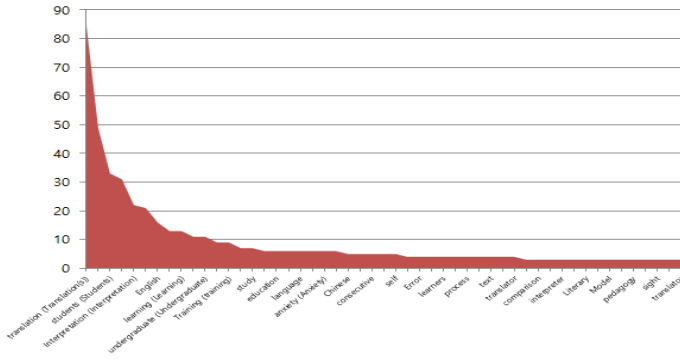
그림 15 학습자 요소 하위주제 비중(%)



학습 분야 교육 연구의 내용을 예측해보기 위해 어휘 빈도를 살펴보면 교수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translation(85)이 가장 큰 빈도수를 보이며 번역 학습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뒤이어 interpreter(49), student(33),

Korean(31), interpretation(22), interpreting(21), English(16), Analysis(13), learning(13), undergraduate(11) 등이 등장하여 통역, 학생들, 학습, 학부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그 밖에 consecutive, anxiety, notetaking, error, learner, performance 등을 통해 순차 통역 및 노트테이킹, 오류, 학습자, 퍼포먼스, 불안감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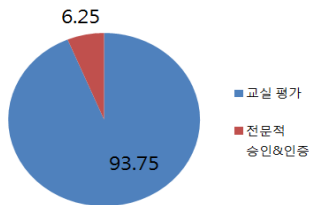
그림 16 학습 주제 통번역 교육 연구의 어휘 빈도



다. 평가 분야 연구 하위 주제 비중

마지막으로 평가 분야 하위 주제 비중을 살펴보면 교실 평가가 15편 (93.75%)으로 거의 전 비중을 차지, 전문적 승인 및 인증 관련 연구는 고작 1편(6.25%)에 그쳐 가장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그림 17 평가 영역 하위 주제별 비중(%)



특히 그림 18에서 보듯이 교실 평가 내에서도 모델&방법에 관한 연구가 13편으로 86.67%나 차지하면서 2편(13.33%)에 불과한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전문적 승인&인증의 1편은 모델&방법에 관한 연구로 평가 분야는 하위 주제 영역 내에서도 특정 연구의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림 18 교실 평가 하위 주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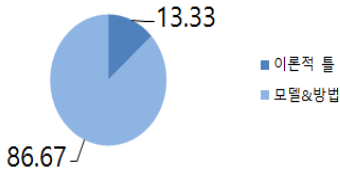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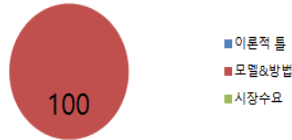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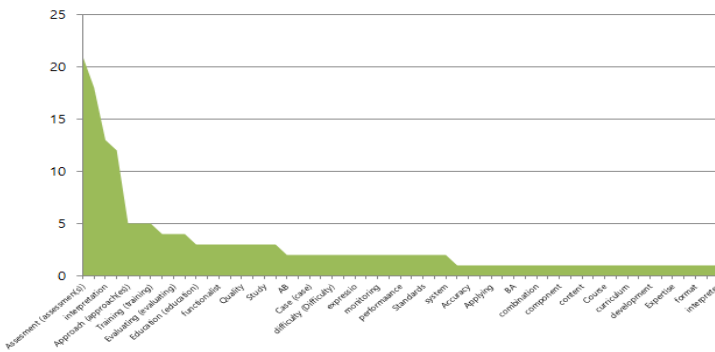


그림 19 승인&인증 하위 주제별 비중(%)



한편 어휘 빈도를 살펴보면 assesment(21), translation(18), interpretation(13), evaluation(12), approach(5), class(5), training(5), consecutive(4), evaluation(4) 등 순으로 나타나 다른 주제 영역과 달리 통역 분야가 번역과 대등할 정도로 눈에 띄게 등장하여 통역 평가, 순차 통역 평가, 교실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그 밖에 peer, feedback, quality, TQA, AB 등을 통해 동료 평가, 피드백, 품질, TQA, 외국어 방향에 관한 평가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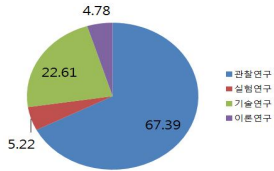
그림 20 평가 주제 통번역 교육 연구의 어휘 빈도



### 3.3. 통번역 교육 연구의 연구 방법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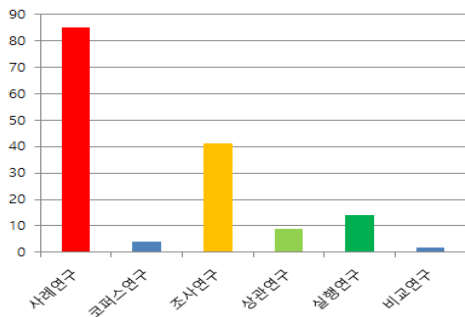
연구 방법론에 따라 전체 230편의 논문을 분류해보면 경험 연구가 167편(72.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비경험 연구는 63편(27.39%)으로 크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관찰 연구가 62.39%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 기술 연구가 22.61%로 그 뒤를 따르며 그 밖에 실험 연구, 이론 연구가 각각 5.22%, 4.78%로 거의 유사하게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1 연구 방법론별 연구 비중(%)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찰 연구를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22와 같이 사례 연구가 85편(54.8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편중 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조사 연구가 41편(26.45%)으로 뒤를 따르고, 실험 연구(14편, 9.03%), 상관 연구(9편, 5.81%), 코퍼스 연구(4편, 2.58%), 비교 연구(2편, 1.29%)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2 관찰 연구 하위 연구 방법론별 비중(%)



이상의 분석 결과는 김혜림(2013)이 번역학 연구의 연구 방법론으로 사례 분석(46.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기타 기술 연구(24.09%), 실험 연구(10.67%)가 사용되었다고 제시한 바와 유사하며, 결국 사례 분석 중심의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이 번역학이나 통번역 교육 연구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연구 방법 동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홈즈(1988)는 번역학을 “경험 과학”으로 규정, 투리(Toury 1995: 1) 또한 번역학이 온전한 경험 과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언급한 바 있으며, 윌리엄과 체스터만(2002) 역시 번역학이 철학적, 개념적 분석으로부터 경험적 연구로 이행되며 그것이 최근 번역학의 가장 중요한 경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정연일(2005: 111-2)은 이와 같은 번역학 내에서 경험적 접근의 치중 현상을 신생 학문으로서 번역학의 생존 유지를 위한 학문적 생태계의 본능이라 설명한다. 인접 학문으로부터 20세기 후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독립한 번역학이 하나의 당당한 학문으로서 과학화하기 위한 길로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뒷받침하듯 통번역 교육이나 번역학 자체에서 경험주의의 관찰 연구, 특히 사례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수잔 사라예바(Susan-Sarajeva) 역시 번역학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례 연구 방법론이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2009; Yan et al. 2015: 280 재인용).

한편 김혜림(2013)의 연구 결과 통역의 경우 실험 연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반해 교육에서는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난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윤리적 문제와 유관하다고 판단된다. 번역학 연구 방법론에서 윤리적 문제가 실험 연구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교수법 적용과 같은 실험 결과에 따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육적 차별, 더 나아가 학생들에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만큼 보다 미묘한 윤리적 사안이 교육 분야에 잠복해있는 것이다(정연일 2005: 108).

#### 4. 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통번역 교육의 활발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그 특징 및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CI에 등재된 대표적인 통번역 관련 학술지 3종에 창간호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게재된 교육 관련 총 230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우선 일반 통계를 집계하면 『통역과 번역』이 전체 게재 논문 수는 가장 낮지만 통번역 교육 관련 비중(29.34%)은 가장 높았으며, 『번역학연구』는 게재 논문 수가 가장 높지만 교육 관련 비중(13.3%)이 세 학술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체 통번역 교육 연구의 학술지별 기여 비중을 살펴보면 세 학술지 모두 30%를 상회하며 균형을 띠었고, 특히 『번역학연구』의 교육 연구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통번역 교육을 이끄는 역할까지 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대상의 경우는 학부와 대학원의 제도권 내 교육 연구가 93.04%를 차지하였고, 언어권 별로 살펴보면 영어 통번역 교육 연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각히 드러났다. 그러나 분야별로는 통역과 번역의 비중이 대등하게 나타나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번역 연구에 치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교수 분야가 무려 69.13%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습 분야가 23.48%를 차지하였으며 평가 영역은 고작 6.96%에 그쳤다. 시기별로 파악해보면 교수 분야가 항상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며 통번역 교육 연구를 주도해나가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학습 영역의 연구 성장이 돋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영역별 하위 주제 비중을 들여다보면 교수 분야의 경우 교실 훈련 접근법, 교육 구성 요소 연구의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고, 동시에 능력 개발, 수요 분석, 기술 및 훈련, 번역 및 언어 교수, 연구 능력 훈련 분야의 연구 성과는 미진함을 드러내었다. 한편 학습 분야의 경우 학습자 퍼포먼스와 학습자 요소 연구가 대등하게 이루어졌으나, 마찬가지로 학습자 전문지식 개발, 능력, 개인성 분야의 연구 공백이 드러났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평가 분야이다. 평가 연구가 교실 평가, 특히 평가 모델 및 방법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문적 승인 및 인증 분야는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틀과 시장 수요에 관한 연구마저 부재하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관찰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험 중심적 번역학 연구 동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례 연구가 가장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었으며, 뒤이어 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코퍼스, 상관, 비교 연구 등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났다. 비경험 연구 방법 또한 기술 연구에 치중, 이론 연구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통번역 교육학계가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 그리고 특정 언어 편중 연구에서 벗어나 초언어적 통합적 통번역 교육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언어권별 교육 관련 코퍼스 구축 및 활용 프로젝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각 제도권 내 통번역 관련 학과 및 학년별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텍스트를 비롯한 교재용 성격의 자료, 학습자들의 통역과 번역 결과물을 데이터화한 코퍼스를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일종의 DB 구축 프로젝트는 CAT(Computer Assisted Training)의 가장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에서 연설문 및 교육용 자료를 취합하는 사업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다(Sandrelli & Jerez 2007; 진실희 2016 재인용)<sup>10)</sup>.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체계적인 통번역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가 전무하다. 번역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 또한 주로 자동번역이나 기계번역용에 국한되며 통역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관련 DB를 구축하게 되면 해당 언어 통번역 교육의 유형학적 또는 보편적 특징을 파악 및 그 특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들의 특징 파악 및 비교, 수업 자료 및 난이도 척도 개발 및 평가, 이에 따른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를 기반으로 교수자들은 수업 모형을 개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학습 환경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최첨단 실감형

10) Trieste 대학은 음성 텍스트는 물론 해당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용어가 포함된 글로서리(Glossary)를 공동으로 취합하여 공유하는 IRIS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Granada대학에서도 Mariu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2007년 기준으로 1시간 분량 동영상 총 2,000여개가 취합된 바 있다(진실희 2016).



기술을 통번역 수업에 접목(진실희 2016)하기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통번역 교육 연구 성장세를 가속화하며 그 범위를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과물 중심의 학습자 퍼포먼스 특징 및 오류 분석에서 벗어나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학습자 개별적 요소, 즉 학습자 적성 검사, 개인성 및 능력 검증, 전문지식 개발 및 척도 개발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학에서 개발한 성격유형선호지표(MBTI)나 병리학에서 개발한 적성검사투영법에 속하는 인격진단검사(TAT)를 통번역 교육과 연계(Nancy 2005; Kim 2006)시키거나 통/번역 자기효능감(SE, Self-Efficacy) 척도를 개발하여 통역이나 번역 능력 및 성취도를 측정하는 연구(이상빈 2016)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타 학문에서 개발한 각종 검사 및 척도나 이를 응용하여 통번역학에 적합한 툴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는 통번역 교육 기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통번역사 직업군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역과 번역 분반 구성이나 학습자 인성/인지/심리 파악 및 지도에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교육 계획 및 훈련 전략 구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상빈 2016: 142).

셋째, 그간 이룩한 제도권 내 교육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 특히 시장과 연계한 통번역 교육 및 전문 평가&인증 연구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대학 내 부속 기관이나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 및 분야의 통번역(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의 비즈니스 통번역기초과정이나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사법통역전문가 기초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의료통역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분야의 연구는 과정 개설이 최근에 이루어진 탓이겠지만 개별적으로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곽중철 2010, 2011; 이지은 2013), 국내 이와 유사한 과정들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이나 과정들의 특징 분석, 체계적인 수요 조사 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각 과정별 적정한 교육 시간, 과정 이수 이후 도달하게 되는 통번역 능력 수준 예측 및 실제 달성 여부에 관한 평가, 학습자의 만족도 및 교육 서비스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재 분석 및 개발, 해외 및 국내 해당 분야 인증에 관한 이론적 틀 및 모델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제도권과 비제도권

연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지향적 통번역 교육의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통번역 교육 연구의 심화와 연구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통번역학의 분과학문으로서 통번역 교육학을 구축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번역 연구 방법론과 별개로 통번역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과 연구 방법론 구축 및 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타학문의 경우 영어학-영어교육학, 국어학-국어교육학, 음악-음악교육학과 같이 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방법에 관한 이론 및 실제의 연구 성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통번역학의 경우 교육은 교수법에 관한 이론만 정립되어 있을 뿐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통번역 교육 과정에 이미 참여하거나 앞으로 참여하게 될 교육자 및 연구자들이 교수 활동과 연구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통번역 교육 연구 방법론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번역 교육 연구 방법론 세미나와 프로그램 마련, 통번역 교육 연구 총서 발간, 통번역 교육 연구 방법 및 이론과 실제, 통번역 교육 연구 방법과 통계 분석, 통번역 교육의 질적·양적 분석, 통번역 교육 방법과 통계/코퍼스 분석 등의 다양한 서적 및 논문 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수자나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와 교육 기관 평가 항목으로 연구 성과가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통번역 교육 연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Kelly & Way 2007)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전문 통번역 교육이 시작된 지 40여 년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간 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개괄함으로써 통번역 교육학의 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통번역 교육 연구의 현 주소 파악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어 통번역 교육학이 성장하기를 기원해본다.

### 참고문헌<sup>11)</sup>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종규, 김정연(역) (2002) 번역교육과 교육에서의 번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Jean Delisle, Hannelore Lee-Jahnke (1998)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et traduction dans l'enseignement*. Ottawa, PUO, coll.).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김훈밀(역) (2014) 『통번역학 연구 문제점과 향후 방향』,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 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31-150.
-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1): 35-64.
- 이상빈 (2016) 「통역자기효능감(ISE)과 통역·번역 성취도(능력)의 상관관계 비교 연구」, 『통번역학연구』 20(4): 141-165.
- 이지은 (2013) 「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번역학연구』 14(5): 195-223.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341-362.
- 정연일 (2005) 「최근의 번역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9: 98-116.
- 정용복, 최낙진 (2014) 「제주지역 언론학 연구의 메타분석: 1998~2013년까지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6: 165-203.
- 정철자 (2013) 학습자 중심의 통역 교육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7(4): 157-177.
- 정호정 (2013) 「번역학 연구의 발달과 당면 과제: 국내외학술지 분석을 통한 문

11)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을 모두 참고문헌에 언급해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본문(각주 제외)에서 언급된 논문만을 여기에 수록하기로 한다.

- 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 3-69.  
서울: 한국문화사.
- 진실희 (2016) 「통역 교육의 교육공학적 접근: CAIT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6 중앙대학교 통역번역 연구소 학술대회 프로시딩』: 3-15.
- 최희섭 (2007)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345.
- 최희섭 (2014) 「한국번역학회의 태동과 발전」, 『번역학연구』 15(5): 363-388.
- 한현희 (2016)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번역학연구』 17(2): 251-286
- 한홍진 (2007) 「상업교육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15: 51-77.
- Chesterman, Andrew (1998) 'Cause, Translation, Effects', *Target* 10(2): 201-230.
- Gile, Daniel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into Conference Interpreting. A Scientometric Approach', *Target* 12(2): 297-321.
- González, Davies (2004) *Multiple voice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Amsterdam: John Benjamins.
- Holmes, James (1972/2000)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Venuti Lawrence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72-185.
- Holmes, James (1988)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Hurtado, Amparo (2007) 'Competence-based curriculum design for train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163-195.
- JunWang, HonghuaYan and Jackie (2015) 'Advances in Research o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A Review of Research articles in META', *Meta* 60(2): 347.
- Jackie Xiu Yan, Jun Pan and Honghua Wang (2015) 'Studies o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a data-driven review of journal articles 2000-12',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9(3): 263-286.
- Kelly, Dorothy and Catherine, Way (2007) 'Editorial; On the Launch of IT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 1-13.

- Kim, Hae young (2006) 'Utility of Anxiety Scales in Translation Education: Test of the Translation Apprehension Test', *통역과 번역* 8(1): 45-60.
- Ladmiral, Jean-René (2003) 'Epistemologie de la traduction', in Salah Mejri (Ed.) *Traduire la langue traduire la culture*, Tunis: Sud Editions, 147-168.
- Minhua Liu (2003) 'Methodology in Interpreting Studies: A Methodological Review of Evidence-based Research', in Brenda Nicodemus and Laurie Swabey (eds) *Advances in Interpreting Research: Inquiry in A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85-119.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ym, Anthony (2009) 'Translator Training', Pre-print text written for the Oxford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http://usuaris.tinet.cat/apym/on-line/training/2009\\_translator\\_training.pdf](http://usuaris.tinet.cat/apym/on-line/training/2009_translator_training.pdf).
- Saldanha, Gabriela and Sharon O'Brien (2013) *Research Method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chweda-Nicholson, Nancy (2005)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interpreter trainees: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BMTI)',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3: 109-142.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illiams, Jenny and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許鈞, 穆雷 (2009) *中國翻譯研究(1949-2009)*,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인터넷 검색]

교육평가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996&cid=42125&categoryId=42125>

한국의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http://itri.hufs.ac.kr>

[분석 대상 학술지]

『통역과 번역』 vol.1(창간호) ~ vol.17(3)

『통번역학연구』 논문집 1 ~ 제19권 4호

『번역학연구』 제1권 1호 ~ 제16권 제 5호

[Abstract]

##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Korea'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Han, Hyun-He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conducting meta-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eatures and trends of researches on Korea's T&I education field and to seek further improvement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230 papers on T&I education published in three T&I academic journal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hree journals had a similar number of papers on T&I education; 2) research trends consist of three topics - teaching(69.13%), learning(23.48%), and assessment(6.96%); 3) methodologically, case and survey studies were more active, while corpus-based, correlational, and theoretical studies were relatively inactive.

The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es on T&I edu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integrated trans-lingual T&I education studies are needed as opposed to the current trend of T&I education researches mostly focusing on Korean-English T&I educ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systematic methodologies that consider learn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onducting aptitude test, verify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e, and assessing expertise of learners. Thirdly, cooperation with the clients in the market is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more practical T&I education and assessment methodologies. Lastly, more effort should be put to establish T&I pedagogy as a subdiscipline of T&I studies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oretical researches on T&I education.

▶ Key Words: T&I education, Research Trends, Meta-Analysis

한현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시간강사

hhhupa@naver.com

관심분야: 통번역학, 러시아어 통번역/교육, 문학번역, 수어통역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